

“민간 참여 병역문화 개선 기구 설치”

문 대통령, 육참모 회의 후 지시... “사고 되풀이 않도록”

부대장 영장청구 승인 폐지 등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건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

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해 박 대변인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설치를 지시한 개선 기구와 관련해 “(문 대통령) 기구의 장(長)이



누가 될 것인지,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며 “민간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빨리 발족하면 좋겠지만, 어느 시점까지 기구가 구성돼야 한다고 특정해서 말씀하시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방부가 제출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들은 군 항소심을 고등군사법원

에서 민간법원으로 이관하고, 군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장 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수사 공정성과 군 검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담고 있다.

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 설치된 보병검찰부를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관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사안에 관해서는 소속 검찰 단장만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의 사판과 진반 등을 사병이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다”며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시분차별 인

식된 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아직도 일부 남아있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군 장병들의 인권뿐 아니라 시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며 병영문화 개선 의지를 밝혔다.

또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이 모 중사의 추모소를 방문해서는 피해 모친의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를 듣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시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3일 부실급식 문제와 성범죄 부실 대응 문제 등을 해결을 위해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ITF) 출범회의’를 열었다. /뉴스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내 삶을 지켜주는 ‘신복지 전북포럼’ 내일 오후 출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권 지지모임인 ‘신복지 전북포럼’이 출범한다.

오는 9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4인홀에서 창립총회 및 축하공연과 이낙연 전 대표의 특강으로 출범식을 갖는다.

포럼의 정식 명칭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전북포럼’이다.

한편, 신복지 전북포럼은 서창훈(김근태재단 부이사장)을 수석 상임대표로 추대해 각계각층 1만 2000명의 발기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확정’

민주 이원택 의원, 기재부에 총사업비 증액 당위성 설득 결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 1,688억 원 확충’을 본격적인 수목원 조성사업에 들어 가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국내·외 해안 생물자원 수집, 증식을 통한 희귀·멸종 해양식물 보존 ▲방염·방풍·염생식물의 연구·전시를 통한 선진 생태·문화 환경 제공 ▲해양식물기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해외 해양식물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필요성으로 추진중에 있다.



총사업비를 증액변경 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북 새만금 개발지역 농업용지 6공구에 추진중인 이 사업은 면적 151ha 규모로, 지난 2018년 시작돼 2026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문화서비스지구, 해안식물주제전시지구, 해안식물연구지구, 염생식물연구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관광 명소화와 랜드마크화 추진을 통해 새만금지역이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며 “그린뉴딜 기조에 걸맞는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통해 새만금 지역의 소실된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전북도와 김제시 관계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산림청이 추진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국내 4번째 국립수목원으로 새만금지역의 선도지역으로 국가적 위상에 걸맞는 미래지향적 해양형 수목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로 추진된다.

그러나 총사업비가 당초 1,388억원으로 추진중에 있던 등 사업은 물가상승과 연부채환 성토, 수공관 수질관리, 인양차반 보강 파일공사 등 현장여건을 반영한 총사업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산림청은 총사업비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에 이원택 의원은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총사업비 변경을 위해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해 국립새만금수목원의

/유호상 기자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정부 계획에 반영돼야”

황의탁 도의원 “경제적 지표 한정해 평가 적절치 않아”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황의탁(더불어민주당, 무주군)의원이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해결과 환경개선과 교통·물류·경제 중심축 연결과 영·호남의 교류 확대를 위해 전주~무주~성주~대구를 잇는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북도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포항에서 새만금을 잇는 총 282.8km의 동서 3축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포항-대구, 새만금-전주, 전주-대구의 총 3개 구간으로 나눠 진행 중인데, 이미 완료되거나 추진 중인 나머지 사업과 달리 전주-대구 구간은 지난 1999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돼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간 고속도로의 건설을 통해 가능하게 해 해당 노선을 경제적 지표에 한정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특히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이념을 강조하고, 주요 국정과제로 지역 상생을 위한 도로망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며 “올해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과 그 하위 계획인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021~2025)가 수립되는 해인 만큼,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지난 5월 전북도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는 등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빽빽하게 상황이다”라며 “정부는 사제의 심각성을 조속히 깨닫고, 도로망 건설 관련 계획의 최종안을 확정짓기 전에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 로



전북도 중국사무소는 지난 4일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제1기 전북도 중국사무소 전문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중국 내 전북도 성과 창출 네트워크 시동

제1기 전북도 중국사무소 전문관 위촉식

중국 내 전북도 성과 창출을 위한 전북도 중국사무소 전문관 구성이 완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 중국사무소(소장 이지형 이하 중국사무소)는 지난 4일 제1기 전북도 중국사무소 전문관 위촉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진행된 이번 위촉식에는 상하이, 난징, 선양, 칭다오, 충칭, 청두, 선전 등지에서 20여명의 전문관이 참석했으며, 엔타이에 소재한 군산대표처도 함께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1기 전북도 중국사

무소 전문관은 모두 21명으로, 5개 권역(화둥, 화남, 화북, 서부, 동북)별 현 지역 대학생, 유학생, 유학자, 국제교류 등의 전 분야에 걸친 전문,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전북도 성과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다.

중국사무소는 월회 이상 전문관과의 통화 등 상시적 교류를 통해 전문관 활동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나갈 방침이며, 우수 전문관 및 제안 사항은 ‘전북도 중국사무소 전문관 정책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본청에 공유함으로써 대중국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

이다.

중국사무소는 또한, 전문관 전원이 전북도 출신이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 성과 외에도 전문관간 상호 교류를 통해 전문관 개인의 발전 및 나아가 전문관이 아닌 중국 내 전북도 출생인사의 성공 및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 중국사무소 전문관들은 위촉식 다음 5일 만국공모 참여, 상하이 임시정부를 탐방했으며, 육상장 의거지를 방문해 전북출신 독립운동가인 백정기 의사의 뜻을 기렸다. /유호상 기자

외국인 영상콘텐츠로 만나보는 ‘매력 넘치는 전북’

도 국제교류센터 주관
공모전 본선대회 개최
나탈리 북트·레아 모로
플 허쉬버거 등 7팀 수상



전북도 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는 2021 외국인 영상 콘텐츠 공모전 본선대회가 지난 6일 전주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매력 넘치는 전북’을 주제로 한 외국인 영상 콘텐츠 공모전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1일까지 4주간 참가자를 모집하고, 5월 27일 비대면 예선을 통해 본선 진출자 15개 팀(20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역사, 문화, 자연, 정(情), 음식, 전북 투어패스, 모주 등 다양한 주제로 우수한 영상미와 함께 자세한 설명까지 더한 영상 작품을 제작했다.

이날 심사 결과 총 7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은 스위스 출신인 나탈리 북트, 최우수상은 2팀으로 레아 모로(프랑스), 플 허쉬버거(미국), 우수상은 4팀으로 알레한드로(스페인), 스테베스(브라질), 님도르 카르피오(필리핀), 피네다(다인 팀(다국적))이다.

기타 장려상은 이조기 팀(중국), 양림비 팀(중국), 우수(중국), 응우옌 팡 쩡 팀(베트남), 응우옌 반 하이(베트남), 자와 팀(인도네시아), 디마스 팀(다국적) 등 7팀이 수상했다.

특히, 대상을 받은 스위스 출신의 나탈리 북트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전북도를 처음 방문했으나, 역사와 문화적 설명을 곁들인 전주 한옥마을 방문기 영상을 제작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또 최우수상자의 레아 모로는 전북투어패스를 이용한 순창 관광 소개, 플 허쉬버거는 군산 먹방투어를 선보였다.

한편, 유튜브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된 본 대회는 “너도 한번 전북도에 가보고 싶냐”, “영상 퀄리티가 매우 높다”, “비밀밥 맛있겠다” 등 다양한 이목이 쏠렸다.

이영호 국제교류센터장은 “이번 대회에 참여한 외국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대회가 매력 넘치는 전북도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대면·비대면을 병행한 국제교류의 효율적 추진으로 글로벌 전북도로 거듭나도록 바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선관위, 올 하반기
공정선거 지원단 모집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하반기 선거법 안내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27명(도선관위 2명, 구·시·군별 1~2명)으로 지원자는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원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를 구비해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1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고 정당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2021년 7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북선관위 홈페이지(<http://jh.mc.gok.kr>)를 참고하거나, 전북선관위 지도과(☎239-2330) 또는 각 구·시·군선관위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도내 기초의회 소식

무주군의회, 오늘부터
15일간 정례회 개최

무주군 의회(의장 박찬규)가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광환 의원 대표발의의 무주군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보존부적합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무주군 중부권 톱발배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민간 위탁 등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20건의 의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무주군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도 짚어보게 된다.

의사일정으로는 첫날인 8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의 제안설명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총괄보고를 진행하고, 9일부터 11일까지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다.

이어서 14일부터 17일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18일에는 군정질문을 실시한다.

2일에는 조례안 등 의안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질의·답변을 거쳐서,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 각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를 열어 모든 상정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한다. /무주=전문선거자